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잔칫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고, 빈 잔을 채워 주시며
 어두운 골짜기에도 함께 걸어 주십니다.

그러나 초대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오늘 내게 맡겨진 길을 충실히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이미 하늘 잔치를 닮아갑니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10/01/2026 기준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30,985
 현재 참가 인원 - 75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24 예물 준비 성가 : 217, 512 성체 성가 : 176, 168 파견 성가 : 236

연중 제27주일(10/4)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3명	67명	221명	117명	44명	502명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1)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이룬 개혁가

'맨발의 가르멜회' 창립자이자 교회 박사, 기도 신학의 권위자

"거의 2천 년 동안 성교회의 품에 축적된 모든 지혜와 지식, 기도와 신비적 체험에 관한 경험을 보관하고 있는 웅장한 저장고."

이 같은 찬사와 함께 성 베르나르도, 성 보나벤투라,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십자가의 성 요한 등과 더불어 그리스도교 신비 사상의 최고봉에 이른 인물로 꼽히는 성인이 바로 아빌라의 데레사(Teresa de Ávila, 1515~1582)이다.

가르멜 수도원 개혁가이자 신비가, 교회 박사인 데레사는 '수도적 관상 생활과 사도적 활동의 조화와 일치'라는 독특한 영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맨발의 가르멜회'(Discalced Carmelites) 창립에서 볼 수 있듯이 뛰어난 개혁 정신의 소유자였다. 행동가이자 열정적인 인물이었던 그는 현실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상을 추구하여, 관상과 활동, 이상과 현실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 준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아빌라의 데레사'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는 바로 '기도'이다. 그는 하느님과의 합일에 이르는 기도의 체험과 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탁월하게 묘사하였다. 이로써 학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도 권으로부터도 기도 신학의 권위자로 인정받았으며,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데레사는 1515년 3월 28일 스페인 아빌라에서 9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때 유대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열심한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으며 특히 순교자전을 즐겨 읽었다. 일곱 살 때 순교자들의 장렬한 죽음에 깊이 감동한 그는 자신도 순교자가 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집을 나설 정도로 남다른 신앙적 열정을 보였다.

열네 살 무렵 교육을 위해 아우구스티노 수녀회에 맡겨졌으며, 열아홉 살에 아빌라의 강생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도 생활을 시작



하였다. 이후 약 20년 동안 여러 신체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수도자로서의 삶을 이어 갔다.

40세 무렵 깊은 내적 회심을 체험한 데레사는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며, 여러 신비적 체험도 겪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가르멜회를 개혁하여 초기 가르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마침내 그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562년 네 명의 수녀들과 함께 가르멜의 초기 규칙에 따른 더욱 엄격한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아빌라에 성 요셉 수도원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카스티야와 안달루시아 지방에 모두 17개의 개혁 가르멜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데레사의 개혁은 단순히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초기 가르멜회의 정신에 따라 청빈과 기도, 고행의 삶을 강조했으며, 그 개혁 정신은 남자 가르멜 수도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삶을 압축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활동하고, 고통당하고, 사랑 하는 것'이었다.

< 다음주에 >

공지 사항

1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예물 봉헌

오는 11/23(월)은 본당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 간의 건강과 영적 여정을 위해 '우리 본당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영적·물적 예물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성당 로비에 봉헌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신자분들께서는 준비된 용지와 봉투에 정성을 담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을 위한 기도와 정성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봉헌 시기 : 10/17(토)~11/15(주일)까지
- 봉헌 일 : 11/22(주일) 10시 교중미사 중
- *용지와 봉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구역 음식 봉사 / 구역의 날

- 일시 : 10/11(주일)
- 음식 봉사 : Bothell 구역
- 메뉴 : 닭개장

3 구역장 회의 / 회식

- 일시 : 10/18(주일) 오전 11:30
- 장소 : 별도 공지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10/18(주일) 오전 8:00 미사 후
- 장소 : 110호실

베드로회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초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초를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Special Collection(특별 헌금)

- 일시 : 10/17(토)~10/18(주일)
- 시애틀 대교구에서는 World Mission Sunday(전교 주일) 특별 헌금을 실시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은 보편교회의 일원임을 되새기며,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사제·수도자·평신도 선교사와 선교지역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정성 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미사 반주자 모집

하느님을 찬미하며 미사 전례를 풍요롭게 해주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실 교우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분 : 평일 미사, 토요 저녁 주일 미사 반주자
- 문의 : 반주단장 김로사 425.442.7255

8 한국학교 교사 / 보조 교사 모집

성김대건 한국학교에서는 2026-2027학년도 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문의 : sakks10@gmail.com

9 주일학교 & Youth Group 학생 등록

26-27년도 Faith Formation(주일학교)와 Youth Group 학생 등록을 받습니다.

시애틀 대교구의 명칭 사용에 맞추어 영어 명칭은 Sunday School 대신 Faith Formation이 사용됩니다.

- 주일학교 & YG 시작 : 10/11(주일)
- 등록비 : 1명 \$120 / 2명 \$220 / 3명 \$300
4명 이상 학생 1인당 \$100

★ 3학년 : 첫영성체 준비

★ 7-8학년 : 2년 과정의 견진성사 준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9-12학년 : Youth group(임시 운영)으로 추후 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일학교 문의 : 장우혁 유스티노
(whyek.jang@gmail.com)
박지윤 레이나 (reina.park1011@gmail.com)
- YG 문의 : 김형석 그레고리오
(h.greg.kim@gmail.com)

등록은 QR 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이사 25,6-10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리라.>

화답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2독서 필리 4,12-14.19-20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알렐루야.

복음 마태 22,1-14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 이리라.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통탄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 & 편집/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타)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0/29/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7/26)

2026년 전교의 달 특별 담화

하느님과 기쁘게 살아가는 '나의 신앙 이야기'로 하느님을 전합시다

1926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일깨우시고자 전교 주일을 제정하셨고, 올해 우리는 제100차 전교 주일을 맞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선교 사명으로 일치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신 제100차 전교 주일 담화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소명과 선물에 따라 복음화 사명에 이바지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2026년 10월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선교하는 제자로서 하느님 체험의 기쁨과 감사가 담긴 '나의 신앙 이야기'로 이웃에게 하느님을 전합시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는 우리가 시노달리타스의 핵심을 알고(제1부 참조), 관계들의 회심(제2부 참조), 과정들의 회심(제3부 참조), 유대들의 회심(제4부 참조)을 이루어, 선교하는 제자들의 백성으로 양성되어야(제5부 참조) 한다고 말합니다. 「최종 문서」에 따르면, 시노달리타스와 시노드적 회심을 실천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모두 '선교하는 제자들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세례·견진·성체 성사)로 양성을 받아야 하고, 주일 성체성사 때마다 시노달리타스의 세 축인 친교와 참여와 사명(선교)을 새롭게 합니다(「최종 문서」, 142항 참조). 주일 미사의 말씀과 성찬의 두 식탁에 참여한 신자들은 강복과 파견을 받아, 삶에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을 더욱 힘차게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최종 문서」는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초기 공동체가 오순절의 새로움에, 곧 성령 강림의 새로움에 마음을 열도록 도와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선교하는 제자들의 백성, 시노드 교회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며 마무리합니다(155항 참조).

사실 성모님께서 선교하는 제자들과 선교사들의 본보기이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 서둘러 길을 떠나 예수님을 전하러 가셨습니다(선교사가 예수님 없이 길을 떠난다면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자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선교사가 예수님을 전하면 상대방에게 기쁨과 성령의 현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전하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끝으로 성모 마리아께서 마니피캇을 통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루카 1,46 참조)라고 하셨듯이 선교의 기쁨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 찬송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모님에 이어 엠마오의 제자들, 마리아 막달레나, 바오로 사도 등 하느님을 체험하고 스스로 증인이 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교에 앞서, 저마다의 삶에서 얻은 하느님 체험을 바탕으로 '나의 신앙 이야기'를 쓰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쓸 때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기보다 하느님을 주인공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성모님께서 “내가 천사를 만나 하였노라.”라고 하시지 않고,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8-49)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 이야기'의 중심부인 '하느님 체험' 이야기는 하느님을 주인공으로 써 나갑니다. 또한 하느님을 체험하기 전 자신의 삶을 짧게 쓰고, 하느님을 체험한 뒤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짧게 씁니다. 곧 '나의 신앙 이야기'는 1부 하느님을 체험하기 전의 자신의 삶(도입, 짧게), 2부 하느님 체험(본론, 하느님을 주인공으로), 3부 하느님을 체험한 뒤 자신의 삶의 변화(결론, 짧게)로 씁니다. 이렇게 써 두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도 좋고, 이웃에게 전하기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는 우리가 모두 '선교하는 제자'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전교의 달에는, '나의 신앙 이야기'를 써 나가며, 우리 모두 복음의 사도가 됩시다. '신앙 이야기'로 이웃에게 하느님을 전합시다. 더 나아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각 교구 대회 동안 이루어지는 홈스테이와 본당의 날 등에서 '개인 성경 구절'과 '나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며,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을 서로 증언합시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가운데, 함께 걸아가는 시노드 여정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온 교회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전교의 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복음선교위원회
위원장 장신호 주교